광산구, 청년 마음건강 회복 돕는다

‘우리동네-마음소’ 프로그램 운영
11월까지 심리검사·개인상담 등

광주 광산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청년-마음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청년-마음소’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앞두고 이른바 ‘엔데믹 블루(일상회복 불안)’를 겪고 있거나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울과 불안, 정서적 고립 등으로 고민하는 광산구 청년(만19~39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마음진단 심리검사, 집단,개인상담, 청년 네트워킹을 위한 마음치유 원데이클래스, 심리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심리검사는 성격, 학습, 진로 등을 검사하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 검사 후에는 전문가 해석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개인상담은 청년이 심리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통해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나눌 수 있다.

2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 4층에서 소그룹 집단상담도 진행한다. 15명 내외로 총 3기수(기수당 총 8회)로 나눠 운영하며, 집단상담 후에는 비누공예, 목공체험, 템플스테이 등 마음치유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청년들이 함께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리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폼(집단상담 https://bit.ly/3MrqoOt, 개인상담 https://bit.ly/3tnvftf, 심리검사 https://bit.ly/3xg5vAg)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웹포스터 QR코드 이용 가능)

자세한 일정 및 사항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062-960-3862)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팔용(가운데) 광산구 주민자치과장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공로로 정부포상(훈격 근정포장)을 받은 뒤 이돈국(왼쪽) 광산구청장 권한대행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역지침에 협조해주신 의료진·시민 덕분”

코로나19 극복 헌신 광산구청 김팔용 과장 정부 훈장

코로나19가 팬더믹 전염병에서 벗어나 풍토병 수준의 앤더믹으로 전환 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를 극복하기까지 남달리 공헌했던 광산구 한 간부 공무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시에서 첫 코고나19 환자가 발생했던 2020년 2월 광산구 홍보실장을 맡고 있었던 김팔용 과장(현 주민자치과장)이다.

김 과장은 현재 앤더믹 상태로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공무원으로 현직에서는 받기 힘든 정부포상(훈격 근정포장)도 받았다.

이번 정부 포상을 받기까지의 김 과장의 기여도는 첫 환자가 광산구에서 발생하면서 역학조사 과정에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단번에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된다.

홍보실 특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SNS를 통해 신속하게 보건소의 역학조사 내용을 발표, 가짜 뉴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김 과장의 이 같은 아이디어는 이후 코로나19의 역학조사 과정을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으로 도입 돼 발생 초기 감염 우려 등의 지역 사회 혼란스러움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광주시 전체로 널리 확산되자 의료진 등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7월 정기 인사철을 앞두고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김 과장은 스스로 보건소 근무를 자원한 뒤 보건행정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이르기까지 1년6개월간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관한 정부포상 유공자로 선정돼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김팔용 주민자치과장은 “최일선에서 대응해 주신 의료진을 비롯해 그동안 방역지침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과 또 희생해 주신 소상공인 등의 덕분”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이한열 열사를 기억합니다” 신창동 역사문화공원서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 개최

광주 광산구는 “지난 11일 신창동 역사문화공원에서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그대가 꿈꾸던 내일,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추모식부터 문화공연, 체험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한열 열사와 그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를 기리는 특별 사진전’을 비롯한 ‘5·18 주먹밥 체험’, ‘기억의 의자 목공체험’, ‘마을문화제 사진 공모전’, ‘오케스트라 버스킹’ 등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추진한 하명수 신창마을교육발전소 회장은 “청소년들이 이한열 열사의 뜻을 기억하고, 계승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문화제가 살아있는 역사 배움터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돼 민주시민 성장을 돕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열 열사의 모교인 광주 진흥고등학교가 있는 신창동은 2020년부터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이한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 마을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일 신창동 역사문화공원에서 열린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에 참석한 지역 청소년들이 단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올해 문화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광주 진흥고가 공동 주최하고, 신창마을교육발전소와 신창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첨단지구 교통체계 개선 사업’ 주민 의견수렴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 5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첨단지구 교통체계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광산구는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을 위해 첨단중앙로152번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첨단지구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1동 주민자치회의 건의에 따라 광산구가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구간인 첨단중앙로152번길은 좁은 도로에 상시적인 주정차로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 동행정복지센터와 주변 상가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광산구는 해당 도로의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대상 구간 인근 주민과 상가운영자 등은 일방통행로 추진 배경, 지정구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2월부터 5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상인, 사회단체 회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전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광산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는 지난 10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첨단지구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23개 선정…활동비 3천만 원 지원

광주 광산구는 “2022 시민행복동아리 23개 동아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은 취향과 취미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91개 동아리가 신청, 1,2차 심사를 거쳐 23개 동아리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동아리는 앞으로 오케스트라, 반려 식물, 통기타, 북아트, 아로마 테라피(요법)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광산구는 총 3000만 원의 활동비(동아리당 100만~200만 원)를 지원한다.

한편 광산구는 시민행복동아리 활동에 앞서 지난 10일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선정된 동아리와 사업 소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